



#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6월



복음나눔기

연중 제12주일 (6월 20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 4,35-41)



풍랑 속의 그리스도  
그림 렘브란트, 1633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37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마르 4,38)

우리는 주님께 어떤 불평을 하나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르 4,40)

예수님께 말길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되지 않았나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선 나의 피난처 의지할 곳 주님뿐/ 풍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있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옵시며/ 주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시작성가로 이렇게 노래 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하며 고백했는가? 진정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에게 닥치는 풍파를 잘 헤쳐 나갈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는 풍파만 있고 이를 뚫고 나갈 힘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내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걸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다. 믿음이다. 믿는 존재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할수 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풍파, 고난과 시련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수 있다. 어쩌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할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선 내 자신을 말할수 있는 용기부터 청하자.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길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